증권금융 | 조영희 LAB 파트너스

자산유동화 거래 유명 금융 부티크 성공사례 제시

LAB 파트너스의 증권금융팀 을 이끌고 있는 조영희 변호시는 법무법인 세종 시절부터 이름을 날리던 자산유동화 거래의 이름 난 정문가 중 한 명이다.



1998년 세종에서 변호사 생

활을 시작해 때마침 IMF 외화위기에서 불거진 부실채 권 매각, 금융권 자산유동화와 같은 당시만 해도 새로 운 유형의 금융거래 업무를 약 5년간 집중적으로 수행하 고. 이어 하버드 로스쿨(LLM) 유학과 클리어리 가틀립 (Cleary Gottlieb) 뉴욕사무소로 이어진 커리어가 그녀 를 증권금융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뒷받침하는 탄 탄한 기반이 되었다. 조 변호사가 마음껏 실력을 발휘 한 또 한 번의 계기는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파트너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터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. 조 변호사는 당시 우여곡절이 많았던 미국계 금융회사들의 다양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한국시장 철수에 관해 다 각도로 자문했다.

'Tier 2', 'Tier 3' 경쟁력

2018년 LAB로 독립해선, 금융 분야 자문도 부티크에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하며 맹활약하고 있다. 조 변호사의 지휘 아래 LAB는 부티크퍾 으로는 드물게 금융 전문매체인 IFLR1000의 리그테이블에 서 Capital Markets: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sation 분야 'Tier 2', Banking and Finance 분야엔 'Tier 3' 로 랭크 되었다.

조 변호사 팀은 현대캐피탈, 신한카드, KB국민카드, 현 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 캐피탈 및 카드시들을 대리 한 해외 ABS 발행 거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, 외국인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는 인천 송도, 청라 지역 개발사업 에서 꾸준히 외국인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다.

증권금융 | 이행규 지평

카카오게임즈 · SK바이오팜 IPO 성사시킨 '자본시장의 효자손'

58조원의 공모자금이 모였던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인 지 난 9월 10일 공모가의 2배에 시 초가가 형성된 후 상한가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 을 때 투자자들 외에도 흐뭇해



한 사람들이 있다. 카카오게임즈를 대리해 법률실시는 물 론 내부통제체계 구축, 정관을 비롯한 제반 규정의 정비와 외부감리 대응 등 IPO 전반에 걸쳐 자문한 법무법인 지평의 이행규 변호사도 그중 한 명이다.

지난해 'IPO 자문 1위'를 기록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도 불구하고 한국 IPO 시장이 가파르게 회복되며 다른 어 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.

31조원의 공모자금이 몰렸던 SK바이오팜 IPO에서 도 발행사 측 변호사로 활약한 그는 이와 같은 대어급 IPO 외에도 신도기연,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, 레몬, 이 루다, 더네이쳐홀딩스, 젠큐릭스, 영림원소프트랩, 한국 파마, 피앤케이, 압타머사이언스, 센코, 원방테크, 파나 시아 등 수많은 중규모 코스닥기업의 IPO를 성공적으 로 이끌었다.

한마디로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'자본시장의 효자손' 과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는 외 국기업의 한국 상장과 관련해서도 누구보다 많은 딜에 나 서고 있다.

외국기업 상장도 자문

현재 그의 자문 이래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가 진행 중 인 싱가포르의 Prestige Biopharma는 특히 한국시장에 상 장하는 가장 규모가 큰 외국기업 케이스가 될 전망. 그가 관련 규정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외국기업지배지주 회사, 코스닥은 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건도 국내 IPO 시 장의 활황에 힘입어 몇 건을 진행 중에 있다.